

# 강진군, 희망 문화학교 입학식 개최

### 결혼이주여성 대상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두피클리닉 기초교육과정 등 운영



강진군은 18일 성전면에 위치한 누구나창업아카데미에서 결혼이주여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창업프로그램 '희망문화학교' 입학식을 개최하고 첫 번째 교육을 시작했다.희망문화학교는 강진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위탁사업으로 매년 결혼이주여성의 취·창업

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두피케어 기초반과 아로마 하반신 마사지 관리반을 운영한다. 첫 수업으로 박혜연 강사의 건강한 두피, 두피케어의 필요성을 주제로 전문 두피케어 교육을 시작했다. 두피케어 기초교육은 월 3회, 총 25회동안 8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아로마 하반신 마사지 관리반은 고은경 강사가 참여하며 5월부터 17회 실시된다. 입학식에 참석한 일본인 교육생은 "위스타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한 새로운 수업이어서 너무 기대된다며 수업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워보겠다"고 말했다. 유미자 부군수는 "다문화 여성들이 교육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희망문화 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문화학교는 2014년부터 8년간 홈페이지 외 10여 종의 직업훈련 교육을 운영해 16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가짜 석유 신고하세요

###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 운영

해남군은 가짜 석유 피해를 막고자 올해 말까지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를 운영한다.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는 해남군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협력해 가짜 석유 신고 부스를 운영, 연료를 무상 분석해주는 서비스이다. 분석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민원실 안내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료 채취 업체인 예림카모터스(읍 서초길 58-11)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된다. 채취된 시료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내져 분석 후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석유판매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료 채취 비용은 해남군, 택배 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각각 지원한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산모·신생아 위한 서비스 확대 추진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가정 방문 조리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완도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받은 산모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전남도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

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 원(첫째 기준)이다. 신청은 출산 전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 출생아는 223명이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자는 149명으로 전체 출산 가정의 67%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는 물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전·후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061-550-67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올바른 범씨 소독·적기 못자리 설치 중점 홍보

### 벼키다리병·도열병·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대비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범씨 소독과 적기 못자리 설치 지도에 나섰다. 19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국립종자원에서 보급되는 정부 보급종은 전량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돼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 병해충에 올바른 종자 소독법으로 대비해야 한다. 재종한 종자는 범씨 소독에 앞서 종자 선

별을 위해 소금 물가리기를 한 후 충실한 범씨를 골라낸 후 잘 마른 종자를 사용, 온탕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온탕 소독법은 60℃ 물에 범씨 종자를 10분간 담근 후 바로 건져내어 찬물로 열을 식히는 방법이다. 온탕 소독으로 키다리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종자 감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온탕 소독과 일반 약제 소독을 같이 실시해야 한다. 친환경 재배의 경우 약제소독은 불가능하지만 온탕소독과 소금물가리기, 석회유황처리 방법 중 2가지 이상은 반드시 실천해야 범씨 전염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진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온탕 소독 작업 대행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금 물가리기와 범씨 소독 후 못자리 설치를 적기에 하면 육묘하기 적당한 기온과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 고품질 벼 재배가 가능하며, 기간도 짧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장흥 회진면, 천년학길 해안산책로 '더 푸르게'

### 후박나무에 거름주기·물주기 등

장흥군 회진면(김형재)은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천년학길 해안산책로에 식재된 후박나무에 거름주기, 물주기 등 식목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진면행정복지센터 직원 16명은 해안산책로 약 1.5km에 이르는 구간 식재된 후박나무(150주)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겨울동안 추위에 시달린 나무는 고사를 막기 위해 40-50cm 깊이로 구멍을 파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퇴비 살포, 물주기 등을 실시했다. 김형재 회진면장은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지나가고 주민들 마음의 여유를 되찾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해안산책로가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